

## M-10

# 체외수정시술 후 다태임신 태아감수술 (Multifetal Pregnancy Reduction: MFPR)에 의한 쌍태임신의 예후와 결과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제일병원 산부인과

이홍복 · 강인수 · 송지홍 · 전종영 · 유근재 · 송인옥 · 양광문 · 김진영 · 궁미경

**목 적:** 체외수정시술이 시행된 이후 다태임신의 빈도가 증가되었고 그에 따른 합병증으로 미숙아 및 자궁내 태아 발육 지연 등과 같은 위험이 대두되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삼태이상의 다태임신시 MFPR을 이용하여 쌍태임신으로 유지하는 방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MFPR이 임신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체외수정시술에 의해 처음부터 쌍태임신된 경우와 다태임신시 태아감수술을 시행하여 쌍태임신된 경우를 비교함으로써 MFPR이 임신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후향성, 대조군 연구로서 1997~1999년 사이에 체외수정시술에 의해 임신된 80례 (Group A: 삼태임신-65례, 사태임신-15례)의 태아감수술에 의한 쌍태임신과, 체외수정시술로 임신된 쌍태임신 163례 (Group B)의 분만 주수, 출생 체중, 임신 소실률 및 임신중 산과적 합병증 (vanishing twin, IUGR, PIH, discordant twin, single IUFD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다태임신 태아감수술은 임신 7~8주 사이에 경질초음파를 이용한 태아심장 천자술을 이용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결 과:** 두 그룹간의 평균 분만 재태 주수는 Group A에서는  $36.7 \pm 0.2$ 주 (평균±표준오차), Group B에서는  $36.1 \pm 0.2$ 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평균 출생 체중도 Group A에서는  $2481 \pm 46.4$  g, Group B에서는  $2441 \pm 29.7$  g으로 두 그룹간에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 24주 이하에서 발생한 임신 소실률 (pregnancy loss rate)은 Group A에서는 10.0% (8/80), Group B에서는 7.2% (11/153)로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특히 25~28주 사이의 미숙아는 Group A에서는 발생하지 않았고, Group B에서는 3.9% (6/153)를 나타냈다. 그리고 기타 산과적 합병증도 두 그룹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 론:** 삼태 이상의 다태임신에서 쌍태임신으로의 태아감수술을 시행하였을 때, 체외수정시술에 의해 임신된 쌍태임신의 분만 주수, 출생 체중, 임신 소실률, 그리고 산과적 합병증의 여러 결과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므로, 다태임신 태아감수술은 비교적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사료된다.